



# “관광공사 100억 소송 패소 경영진 탓”

제주도의회 407회 임시회… 도·관광공사 업무보고 문광위, 소송 장기화시 막대한 혈세 투입 등도 우려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측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시내 면세점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경영진 탓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제주관광공사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에 대해 소송전이 장기화할 경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등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책임 회피를 위한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중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상식적으로 보면 건물을 빌려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 비용을 자산으로 잡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어쨌든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도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1심 판결에 대해 변호인단이 면밀히 분석한 결과 부당한 게 있다”며 “2심 결과 이후에 관광공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람정제주개발과) 임대차 계약조항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거조항이 없다. 애초에 계약할 당시 경영진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 조항에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며 “면세점 자산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계약할 당시 포함했으면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실내면세점의 경우에도 처음 진출할 때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267억원이라는 손실을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영호(왼쪽), 양영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봤다”며 “그동안 제주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결과물을 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전문경영진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관광공사는 2016년 2월 12일 개장한 롯데호텔제주 내 시내 면세점을 2018년 1월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로 옮겼다. 매년 40억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하자 시내면세점을 수익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신화



1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영호(왼쪽), 양영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월드로 이전한 것이다. 하지만 신화월드로 옮겨진 시내면세점 역시 적자에 허덕였고, 결국 관광공사는 2020년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고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롯데호텔제주에 있을 당시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람정제주개발이 지급해야 한다며 104억원대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금모래해수욕장 기능 잃을라” 화순항 2단계 개발 사업 제동

도의회, 동의안 심사 보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제40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제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는 직전인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데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화순항 2단계 개발 과정에서 화순 금모래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등 환경 문제와 주민불편 등을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도면을 보면 준설량이 매우 많다. 해수욕장 전면 해상구역도 많이 포함됐다”며 “준설 작업 시 부유물질 확산으로 수질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해수욕장 존폐 여부도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공사로 인해 유속이 바뀌고 그에 따라 모래가 유실될 수 있다

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종문·예래동)도 “항만시설이 들어 오면 금모래해수욕장이 과연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역주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해변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변 보존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어업지도선 선착장이 해수욕장 인근 70m 인근에 있는데 이격 거리가 가깝다”면서 “화순해수욕장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데 접안 시설을 옮기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공사 진입로 확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기능 유지, 부유사에 따른 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방안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권 제주도 해양환경과장은 “금모래 해변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태윤기자

# “코로나 긴장 풀려… 방역 대책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방역 의식 제고 필요성 제기 해외 유입 차단 매뉴얼 등도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유행이 재확산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해제로 느슨해진 방역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주도의회 차원의 주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3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3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과 관계 기관 등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읍)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방역) 긴장이 상당히

풀린 상태인데, 정부 정책과 맞춰 어떤 방역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도민사회 방역 긴장감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차원의 준비를 내실있게 해야 한다”며 “도민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무사증 제도 재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 방역당국이 예측했어야 했다”며 “해외 유입에 의한 전파 확산과 관련 제주도 자체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된 뒤 공격적인 방역 정책은 지양하고 일상 내 보호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1일 3000명 확진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라고 답했다. 강다혜기자

#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 제주로

내달 첫 주 전당대회 시작  
도당위원장엔 위성곤 유력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내달 7일 제주를 찾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정기전국대의원대회의 일정을 내달 6일 대구·경북·강원 지역에서 시작한다. 이어 7일 제주에서 열리는 도당 대의원대회에서 8·28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로는 이재명 의원의 대세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강병원·김민석·박용진·박주민·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

혔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당 대표 최종 후보 3명을 가리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제주 대의원대회에서는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도 진행된다. 신임 제주도당위원장에는 재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불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12일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선거권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당한 관리당원 중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시·도당관리당원에게 주어진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모여서 화합하고 뭉쳐서 하나되어 함께 타오르자” 제15회 애월중학교총동창회 날으름체육대회

제주의 여름바다가 더 푸르르게 보이는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중학교총동창회에서 제15회 날으름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 및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22년 7월 17일(일요일) ◆ 개회식 : 오전 10시

장소 모교 교정 (우천시 실내체육관)

주최 애월중학교총동창회 주관 애월중학교 제36회 동창회

후원 애월중학교

연락처 · 주최 : 대 회 장 (총동창회장) 양 호 선 ☎ 010-4692-9977  
사 무 국 장 (총동창회) 강택주 ☎ 010-4691-5787  
· 주관 : 집행위원장 (36회) 김 상 중 ☎ 010-4690-6679  
사 무 국 장 (집행위원회) 고 행 수 ☎ 010-6693-0119

☆경품권 및 책자, 참석자 전원에게 배부 ☆경품 : TV외 다수 등  
☆최다참가상 : 개회식에 제일 많이 참석한 회기 ☆중식제공

※ 개별 초대장은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애월중학교총동창회 회 장 양 호 선 / 집행위원장(36회) 김 상 중

#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신청 안내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 많은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 바랍니다.

가.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중앙사무국)

나. 인정대상 민간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기업, 기타기관 등

다. 인정내용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한 실적(유효기간 1년)

라. 신청기간 2022. 6. 27(월) ~ 7. 29(금)

마. 신청방법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청·접수·결재 가능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 : <https://crckorea.kr/csrcommunity>  
※ 「2022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안내자료」 및 심사내용은 '제주복지넷(www.jejubokji.net)' 접속 후 제주사회복지협의회 > 협의회 알림' 메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지표설명회: 2022. 7. 19(화) 14:00, 제주사회복지협의회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021년 지역사회공헌인정기업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한국중부발전(주)제주발전본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제주관광공사, 제민신용협동조합,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제우스, (주)캐플릭스, 농업회사법인 제직중명, 농업회사법인 (주)아침미소,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14개 기업)